

청소년의 도서관이용이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Library Use of Adolescents on Civic 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김 준 홍 (Jun-Hong Kim)**

초 록

한국 청소년의 균형 잡힌 민주시민역량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주목한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수준에 도서관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고 그 결과의 공공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표집한 중·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1,386명의 표본자료 분석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와 비이용자들 간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의 차이 검정과 도서관이용 경험이 민주시민역량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도서관이용 경험은 인식적 민주시민역량에는 긍정적 효과를, 실천적 민주시민역량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 청소년의 균형적 민주시민역량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의 설계와 관련하여 도서관정책 관련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tests the effects of library use on adolescents' civic 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in a Korean context. Utilizing data (N=1,386) from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6), the study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o test the association of library use of adolescents with the levels of civic 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Teenagers' library use had a positive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cognitive civic competencies while showing a negative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behavioral dimension of civic competencies. Based on the findings, the author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library service for youth.

키워드: 청소년, 민주시민, 시민역량, 도서관, 정책

Youth, Democratic Citizenship, Civic Competencies, Library, Policy

* 본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2년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II)'에 담긴 저자의 문제의식과 이론적 논의를 한국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발전시킨 것이며, 2012년 제49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기초연구실 부연구위원(kjh@nypi.re.kr)

논문접수일자: 2012년 11월 16일 논문심사일자: 2012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2월 18일

1. 서론

한국 청소년들은 학업성취 면에서 매우 뛰어나지만 미래 시민으로서 시민역량을 준비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나라 청소년의 민주적 시민역량의 양상을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한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이루어진 국제교육성취평가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시민지식수준과 인식영역 평가에서는 상위권이었지만,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참여활동의 수준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Schulz et al. 2010). 한국 중학생의 시민지식을 평가하는 검사에서 핀란드와 덴마크에 이어 한국은 3위를 차지하였고 대다수의 한국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시민성뿐 아니라 사회운동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청소년의 학교 밖, 학교 내 시민참여는 모두 최하위군에 머물렀다.

이러한 한국 청소년의 인식과 실천의 괴리는 입시준비에 편향된 교육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독특한 현상의 배후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고 증진하며, 그것을 구성하는 인식과 실천의 괴리를 좁힐 목적으로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장근영, 박수익 2011a) 한국 청소년 중에서 특히 민주시민역량의 실천 영역 지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인식과 실천 사이의 균형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잃은 집단이 누구인지 변별해 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이 점을 규명하지 못한 데에 기존 연구의 한계가 있다.

나아가, 기존 연구들이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상관되어 있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데 일정 부분 성공하기는 했지만(김태준 외 2010; 장근영, 박수익 2011a; 장근영, 박수익 2011b), 이 지식을 어떻게 실무에서 활용하고 현실 청소년정책에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미흡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원천적으로 기존 연구들 상당수가 정책적 개입이나 중재가 거의 불가능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치중하여 분석해 왔기에 이들 요인을 실무적으로 고려하기가 어려웠던 데에서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에서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통계분석을 시도할 때 연구대상 집단의 주요 특성이 사실상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한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표본선정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청소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비판 내지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되,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에 주목하여 볼 것이다.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이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인식 영역과 실천 영역 간의 괴리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그 설명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추론이다. 이는 한국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학업성취 평가와 입시 준비에 치우쳐 편향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기존 문헌의 고찰과 분석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

다. 예를 들어 이경란과 한복희(2009)에서 밝히는 공공도서관의 사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참여도는 매우 낮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학원수강 등 교과학습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에 오래 있지 못하며 공공도서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그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간은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실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정보이용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Gross 1999)을 검토한 정진수(2009)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와 같은 권위자에 의해 청소년에게 부여된 문제(imposed query)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이용을 하는 경우 문제를 부여한 자와 과제를 수행하는 행위자인 청소년 사이에 소통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의 도서관에서의 정보이용 실태는 이러한 쌍방향의 소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균형 잡힌 민주시민역량을 조성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고안함에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분석에서 도서관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민주시민역량 차이가 발생한다면 청소년의 도서관이용과 민주시민역량의 연계성의 논점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에의 영향요인으로서 도서관 이용 여부가 작용하고 있다면, 도서관 이용이라는 영향요인을 한국의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혹은 균형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의 설계 시에 주요 중재요인(仲裁要因)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증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면서 이론적 논의를 시작하겠다.

2.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과 민주시민역량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인식차원과 실천차원의 괴리 현상을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과의 연계성 속에서 숙고하고자 하는 학문적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이란 무엇인지, 어떤 개념적 하부구성요인을 포괄하고 있는 것인지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민주시민역량(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이란 민주주의적 시민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다(Audigier 2000; Dahlgren 2006). 특히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으로서 다양한 활동의 진흥과 참여를 통하여 그러한 역량의 배양을 요구받는다. 무엇보다도 민주시민역량은 민주주의 정체(polity)와 민주적 시민사회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성향, 자질, 능력 등이기 때문에 민주시민역량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논쟁을 해 왔다. 저명한 민주주의 이론가의 최근 저술인 Goodin(2004)에 따르면, 민주주의란 시민의 개별 선호의 집계와 합산의 제도화로서의 투표제를 기본으로 하며, 시민들의 선호에 공평무사하게(impartially) 응답해야 하는 요구 속에서 설계된 정체이다. 특히 민주주의가 시민선호를 반영하는 다양한 시민활동과 참여 속에서 운용된다는 점이 강조된다(Goodin 1992/2004). 곧 Goodin(2004)은 민주주의라는 정체는 소극적으로 시민들의 선호

에 대한 공평무사한 응답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선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을 요청하는 체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논증하였다.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역시 그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전제로 배양된다. 청소년이 학교 안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와 선호를 표명하고 학교 밖에서도 정치·정책·행정·사회적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의미에서 민주주의적 정체에서 선호를 형성해 나가고 그렇게 형성된 선호구조를 실제 활동속에서 확인해 나감으로써 민주주의 질서와 자유를 재생산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시민역량의 주요 하위요인들은 무엇인가? 민주시민의 역량은 다차원적이다. 민주주의 체제와 시민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이란 지식(knowledge), 기능(skill), 성향(disposition), 그리고 동기(motivation), 나아가 행동영역(behavioral domain)을 포괄한다(Torney-Purta and Vermeer 2004). 민주시민역량 개념에서 시민지식 영역을 제외한다면, 크게 보아 인식적 시민역량(cognitive civic competencies)과 실천적 시민역량(behavioral civic competencies)의 하부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사회적 자본 이론가들이 사회적 자본을 인식적 자본(cognitive social capital)과 구조적 자본(structural social capital)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측정하는 것(Uphoff 1999)과 유사하다(김준홍 2012).

인식적 시민역량은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공적 권위나 사람들에 대한 신뢰,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 규범가치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신뢰는 사회적 거래관계에서 타자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일종의 기대를 형성하고 타

자가 그 기대를 저버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이다(Dasgupta 2010). 바람직한 태도 혹은 규범가치는 그러한 신뢰자본(이동원 외 2010) 외에도 민주시민이 내면화해야 하는 태도와 규범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 선호를 표현하고 결집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다양한 참여활동의 가치를 수긍·긍정하고 이에 관심을 기울이려는 태도와 같은 것이다. 민주주의 정체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참여활동의 중요성·필요성·바람직성에 대한 수긍, 그에 대한 인식과 의향, 사회정치적 이슈나 공적 문제에 대한 관심 등이 그 구체적 지표가 된다.

이처럼 인식적 시민역량은 내면적 속성을 가지는 반면, 실천적 시민역량은 객관적, 외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회적 연결망과 그에 연루되는 참여적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천적 시민역량이 주목하는 사회적 연결망은 공식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Pichler and Wallace 2007). 실천적 민주시민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중에서 필수적인 활동은 다양한 네트워크와 결사체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만, 다소 비공식적이거나 사교적인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행동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민주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역량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정치적 성격을 띤 것으로부터 때로 오락적, 사교적, 종교적 성격을 띤 것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한(Hall 2002, 23) 시민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선호영역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은 학교 안팎의 공식적 참여경험과 다소 비공식적 참여와 사교경험을 가질 수 있다. 청소년

의 공식적 참여활동만이 시민역량 배양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며 비교적 덜 공식적 상황에서 예컨대,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 활동을 자발적으로 기획·실행하는 활동을 통한 타자와의 상호작용도 중요한 민주시민역량 배양의 원천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2.2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도서관 이용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인식적·실천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 1971년에 시행된 일차 국제시민교육 조사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 이래로 이와 같은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어 왔지만 수적으로 많지 않다. 우선, 청소년의 사회정치활동참여 및 투표참여(의도) 등을 예측하는 개인수준의 변수로서 시간·지식과 같은 개인 가용자원(Verba, Schlozman, and Brady 1995), 관심 및 효능감 등의 심리 사회적 변수(Amadeo et al. 2002), 미디어 이용(Fleming and Thorson 2008)을, 사회적 수준의 변수로서 사회운동과 같은 계기(Verba, Schlozman, and Brady 1995), 학습토론에서의 개방성과 미래의 기대교육수준(Torney-Purta et al. 2001) 등을 선행문헌에서 제시하였다.

물론 위의 변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대로 한국적 맥락에서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이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인식 영역과 실천 영역 간의 괴리에 대한 설명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본 연구는 예측한다. 서구와 다르게 한국적 맥락에서 대다수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은 다양한 정보이용보다는 열람실 이용에 치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추론의 토대가 된다(이

경란, 한복희 2009). 또한 도서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독서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형식과 방법은 실종된 채 단지 강의에 치중하고 있어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다(한윤옥, 이연옥 2008).

반면, 예를 들어, 영국지방정부는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850)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을 자주 방문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다양한 정보습득과 체험의 기회를 가지도록 유도하였다(D'Elia et al. 2007; 김영석 2007). 이미 서구에서 도서관의 이용은 청소년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구집단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 예컨대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의 제공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이연옥 2010). 이와 같은 서구의 다양한 우수 사례들(Dresang, Gross, and Holt 2003; 이연옥 2010; 이란주 2006; 윤정옥 2008)은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한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많은 경우 충분한 장서를 보유하지 못하고 가용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희소하여(황금숙 2003) 외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이연옥 2007). 청소년의 정보이용을 일종의 문제해결을 위한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바라보는 서구의 이론적 모형(Gross 1999)이 그 적용의 맥락을 상실할 정도로 한국의 도서관은 주이용자들인 학생들의 정보요구나 행태유형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선 서구처럼 도서관이용자에 비하여 비이용자를 혜택받

지 못한 집단(the underserved)으로 규정하면서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논의(Sin and Kim 2008)할 맥락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맥락에서는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보다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회적 서비스에 노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청소년이 실질에 있어서는 민주시민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 다만 민주시민역량의 실천 영역의 배제한 단지 인식의 영역에서는 도서관 이용자인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우수할 여지는 있다. 요컨대, 공공도서관 등에서 제공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빈약한 것이 사실이고, 설령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참여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그나마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간은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실이라고 하는 한국의 실정에서(김중성, 엄미진 2010; 이경란, 한복희 2009) 도서관은 평균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식 수준만을 향상시킬 뿐이고 민주시민역량의 참여 및 실천적 차원은 되레 위축시킬 뿐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한국 청소년의 (인식과 실천 간의) 균형 잡힌 민주시민역량을 조성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고안함에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주목할 근거가 있다고 여겨진다. 역설적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향후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한국 청소년의 분열적 '삶'과 '삶'을 중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공간이다.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이 민주시민역량(인식과 실천 영역)에의 주요 영향요인

으로 검증된다면, 본격적으로 위와 같은 논증을 펼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정책이 한국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설계 시에 고려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 향후 그 구체적인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¹⁾에 관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험적 검증과 실천적 함의 모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인식 차원과 실천 차원에 도서관 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조성·증진하기 위해 도서관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가?

청소년을 포함하여 민주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보유하는 시민역량은, 다양한 선행문헌의 보고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개인에게 미치는 유익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을 한다. 시민역량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증강되면, 시민의 사회참여 신장, 갈등비용의 감소, 협력적 행위의 증진, 경제적 성과와 효율의 증진에 기여하게 되고(Brehm and Rahn 1997; Knack 1992), 인간의 주관적 건강과 행복감의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Harpham, Grant, and Thomas 2002; Helliwell 2001; Kawachi, Kennedy, Lochner, and Prothrow-Stith 1997). 따라서 미래의 민주시민인 청소년의 역량을 예측하는 요인에 대

1) 일반적으로 정책수단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조직적, 정보적, 재정적, 강제적 메커니즘 전반을 말한다(Howlett 2005; Salamon 2002).

한 과학적 탐색을 통한 이들의 민주시민역량 지원체계 및 정책의 수립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도서관정책이 이러한 현안과 연관되는나의 문제도 매우 시급히 해소하여야 할 연구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에 타당하게 답변하기 위한 학술적 시도이다.

교 1~3학년 재학생 1,386명이며, 횡단자료(one time cross-sectional data)이다.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 층화집락 표본추출방식으로서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2005년 교육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모집단 3,730,709명의 0.04%인 1,500명을 목표로 지역규모별, 학교급별, 성별로 표집하였다.

3. 연구방법

3.1 자료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대표성 있는 자료는 2006년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 및 지원방안연구』를 위하여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인권 및 복지욕구 문제를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자 표집한 데이터이다. 이 조사는 학교청소년, 근로청소년,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자료는 그 중에서도 학교청소년 표본의 자료이다.

설문지는 생존욕구, 발달욕구, 보호욕구, 참여욕구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욕구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의식주, 의료보건 및 건강, 가족, 학교, 동네, 직장에서의 일상적 경험, 교육활동, 문화활동, 정보활동, 여가활동, 취미활동, 지역사회서비스, 인권, 참여의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수집방법은 우편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였고, 조사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역이었다. 이 자료의 조사대상자는 중·고등학교

3.2 측정변수

3.2.1 종속(준거)변수

본 연구에서 설명 혹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는 학교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이다. 이는 청소년의 민주시민활동에 대한 인식(필요성 인식) 차원(Cronbach $\alpha = .920$)과 실천(참여활동)의 차원(Cronbach $\alpha = .972$)으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²⁾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은 다음의 5가지 문항,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소감·견해를 밝히기(교칙제정과 같은 학내 문제), 청소년 관련 정책과 행정과정에 공식적 의견을 제시하기(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기(봉사활동 등),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기(아르바이트 등), 마지막으로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기로 나누어 그 필요성 인식(인식적 시민역량)과 실제 참여정도(실천적 시민역량)를 각각 묻고 그 응답으로서 필요성 인식인 경우 '전혀 필요하지 않다'에서 '매우 필요하다'까지 4점 척도로, 참여정도인 경우

2) 후술하는 독립표본 t-검정에서 각 측정항목을 개별적으로 결과변수로 사용하였고,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각 측정항목의 평균값을 결과변수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전혀 하고 있지 않다'에서 '많이 하고 있다'까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3.2.2 독립(예측)변수

본 연구의 계량분석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도서관이용 경험의 유무이다. 이는 설문조사대상인 학교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인 도서관을 최근 1년 동안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3.2.3 통제변수

학교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학년, 거주 지역, 장애학생 여부,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 교육수준, 응답자 성적, 월평균 용돈액수에 대한 질문들이 우편 설문문항에 포함되었다. 학년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자기응답으로 측정되었고, 거주 지역은 대도시(1), 중소도시(2) 및 농어촌(3)으로, 장애학생 여부에 대한 물음에는 장애 있음(1)과 없음(2)으로 코딩되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매우 어려운 편(1), 어려운 편(2), 보통(3), 잘 사는 편(4), 매우 잘 사는 편(5)으로 주관적 척도로 측정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친과 모친의 학력을 각각 무학(1), 초등학교 졸업(2), 중학교 졸업(3), 고등학교 졸업(4), 대학교 졸업(5), 대학원 졸업(6)으로 서열척도로 측정되어 높은 값을 가질수록 높은 학력을 나타냈다. 학교청소년의 학업성적은 상(1), 중(2), 하(3)로 측정하고 역으로 코딩하여 높은 값을 가질수록 높은 학업성적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월평균 용돈액수는 없음(1), 1만원 미만(2),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3),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4), 5만원 이상 10만

원 미만(5), 10만원 이상 30만원미만(6), 30만원 이상(7)으로 코딩되었다.

3.3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학교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양적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체표본을 구성하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청소년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기술통계분석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1년 안에 도서관이용을 해 본 청소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집단 간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의 차이 분석(독립표본 t-검정)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보다 정교한 통계적 분석을 위해 도서관이용이 민주시민역량 수준에 미치는 영향, 즉 선형적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제변수를 투입하고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공차한계, 분산팽창지수 등을 확인하였다. 통계적인 가설검정에서 사용되는 기준 값인 유의수준을 5%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통계패키지 SPSS 18.0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학교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자 814명(58.7%), 여자 571명(41.2%)으로 남자가 다소 많았다. 학년별로는

중2가 448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2가 327명(23.6%), 중3이 275명(19.8%), 고1이 218명(15.7%), 고3이 69명(5.0%), 중1이 43명(3.1%)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거주 690명(49.8%), 중소도시 거주 466명(33.6%), 농어촌 거주 228명(1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은 전체의 2.7%인 37명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890명(6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잘사는 편이 225명(16.2%), 어려운 편이 211명(15.2%), 매우 잘사는 편이 31명(2.2%), 매우 어려운 편이 23명(1.7%)의 순서로 집계되었다. 부모의 교육

수준별로는 부친(510명, 36.8%)과 모친(683명, 49.3%) 모두 고등학교졸업이 가장 많았다. 학업성취도는 중(811명, 58.5%), 하(316명, 22.8%), 상(237명, 17.1%)의 순서였다. 월평균 용돈액수에 따라서는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이 495명(3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 331명(23.9%), 1만원 미만이 261명(18.8%), 5만원 이상 10만원미만이 177명(12.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근 1년 동안 도서관이용자(1,039명, 75.0%)는 미이용자(270명, 19.5%)보다 약 3.8배 많게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명(%)
성별	남자	814(58.7)
	여자	571(41.2)
	무응답	1(1)
학년	중1	43(3.1)
	중2	448(32.3)
	중3	275(19.8)
	고1	218(15.7)
	고2	327(23.6)
	고3	69(5.0)
	무응답	6(4)
거주 지역	대도시	690(49.8)
	중소도시	466(33.6)
	농어촌	228(16.5)
	무응답	2(1)
장애 여부	있음	37(2.7)
	없음	1,340(96.7)
	무응답	9(6)
가정의 경제적 수준	매우 어려운 편	23(1.7)
	어려운 편	211(15.2)
	보통	890(64.2)
	잘 사는 편	225(16.2)
	매우 잘 사는 편	31(2.2)
	무응답	6(4)

변수	구분	명(%)
부친 교육수준	무학	10(0.7)
	초등학교 졸업	55(4.0)
	중학교 졸업	112(8.1)
	고등학교 졸업	510(36.8)
	대학교 졸업	362(26.1)
	대학원 졸업	182(13.1)
	모름	141(10.2)
	무응답	14(1.0)
모친 교육수준	무학	10(0.7)
	초등학교 졸업	37(2.7)
	중학교 졸업	126(9.1)
	고등학교 졸업	683(49.3)
	대학교 졸업	257(18.5)
	대학원 졸업	80(5.8)
	모름	160(11.5)
	무응답	33(2.4)
학업성취도	상	237(17.1)
	중	811(58.5)
	하	316(22.8)
	무응답	22(1.6)
월평균 용돈	없음	44(3.2)
	1만원 미만	261(18.8)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495(35.7)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331(23.9)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77(12.8)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50(3.6)
	30만원 이상	22(1.6)
무응답	6(0.4)	
지난 1년 동안 도서관 이용	이용	1,039(75.0)
	비이용	270(19.5)
	무응답	77(5.6)
합계		1,386(100)

4.2 민주시민역량 차이 검정

4.2.1 인식 영역의 차이

다음 <표 2>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인식적 민주시민역량(청소년활동 필요성 인식) 차원에서 도서관 이용 경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한 결

과이다.

청소년활동의 필요성 인식 차원의 5가지 모든 항목에서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집단보다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집단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인식적 시민역량 구성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2〉 청소년의 인식적 민주시민역량의 두 집단 차이: 평균비교

청소년활동 필요성 인식의 구성요소	t값	도서관 이용 경험 청소년(N=1,038)		도서관 이용 미경험 청소년(N=27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의견·소감·견해를 밝히기(범위=1~4)	4.173***	3.04	.998	2.69	1.264
청소년 정책과 행정과정에 공식적 의견 제시(범위=1~4)	3.041**	2.98	1.009	2.73	1.227
청소년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활동(범위=1~4)	3.763***	3.13	1.063	2.82	1.216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는 활동(범위=1~4)	3.286**	2.96	1.017	2.70	1.154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기획·실행(범위=1~4)	3.805***	3.11	1.056	2.81	1.172

** p<.01 *** p<.001

〈표 3〉 청소년의 실천적 민주시민역량의 두 집단 차이: 평균비교

청소년활동 참여의 구성요소	t값	도서관 이용 경험 청소년(N=1,038)		도서관 이용 미경험 청소년(N=27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의견·소감·견해를 밝히기(범위=1~4)	-2.396*	2.34	1.996	2.77	2.766
청소년 정책과 행정과정에 공식적 의견 제시(범위=1~4)	-2.395*	2.25	2.137	2.68	2.723
청소년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활동(범위=1~4)	-1.435	2.67	2.007	2.91	2.658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는 활동(범위=1~4)	-3.471**	2.21	2.037	2.84	2.804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기획·실행(범위=1~4)	-2.144*	3.41	2.069	2.79	2.697

* p<.05 ** p<.01

4.2.2 실천 영역의 차이

〈표 3〉은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실천적 민주시민역량(청소년활동 참여) 차원에서 도서관 이용 경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한 결과이다.

청소년활동의 실천 차원의 5가지 모든 항목에서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집단보다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집단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의 실천을 제외한 실천적 민주시민역량 구성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4.3 청소년의 도서관이용과 민주시민역량의 관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도서관 이용 여부가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인식과 실천의 두 영역의 민주시민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식적, 실천적 민주시민역량을 종속변수로, 도서관이용 경험 유무를 독립변수로,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수 등(성별, 학년, 거주 지역, 장애학생 여부, 가정의 경제수준, 부친의 교육수준, 모친의 교육수준, 학교성적, 월평균 용돈액수)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도서관이용 경험이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인식적 시민역량			실천적 시민역량		
	B	SE	Beta	B	SE	Beta
통제변수						
성별(여성)	.123	.055	.068*	-.166	.122	-.042
학년	.091	.022	.137***	-.107	.050	-.072*
거주 지역	.005	.038	.004	.015	.085	.006
장애학생 여부(장애없음)	-.157	.172	-.027	.088	.384	.007
가정의 경제수준	.073	.043	.056	.092	.096	.032
부친 교육수준	.010	.034	.012	-.069	.076	-.036
모친 교육수준	.018	.040	.018	.069	.089	.031
학교성적	-.066	.044	-.047	.187	.098	.061
월평균 용돈액수	-.015	.024	-.020	.020	.055	.012
독립변수						
도서관이용 경험(있음)	.240	.069	.105**	-.411	.155	-.082**
상수항	2.472	.434		2.415	.969	
F(df)	4.348***(10)			2.217*(10)		

* p<.05 ** p<.01 *** p<.001

위의 결과를 정리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도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은 인식적 민주시민역량에는 긍정적 효과를, 실천적 민주시민역량에는 부정적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은 다중회귀모형 분석에서 인식적 민주시민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등을 통제변수로 투여한 회귀모형에서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 경험이 인식차원의 민주시민역량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05$; $p = .001$). 둘째,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은 다중회귀모형 분석에서 실천적 민주시민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등을 통제변수로 투여한 회귀모형에서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 경험이 실천차원의 민주시민역량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82$; $p = .008$).

부수적으로, 통제변수 중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과 학년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민주시민역량의 인식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beta = .068$; $p = .025$) 실천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는데($\beta = -.042$; $p = .175$), 인식 차원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민주시민역량의 인식은 향상되었으나($\beta = .137$; $p < .001$) 실천은 줄어드는 것으로($\beta = -.072$; $p = .032$) 나타났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구의 맥락에서 도출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일부 산출하였다. 서구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역량이나 사회적 자본은 도서관 서비스 이용과 대체로 긍정적 관계를

맷고 있다고 하며, 인식과 실천의 양면에서 공히 그러하다고 보고된다(Gong, Japzon, & Chen 2008; Hillenbran 2005; Johnson 2010; Johnson 2012; Macchion & Savic 2011; Vårheim 2007; Vårheim 2011; Vårheim, Steinmo, and Ide 2008).

본 연구에서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도서관 이용 경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본 결과, 청소년활동 필요성 인식(인식적 민주시민역량)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청소년활동에의 참여(실천적 민주시민역량)에서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민주시민역량의 인식영역과 실천영역에서 서로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계변수를 투여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 경험은 인식적 민주시민역량에는 긍정적 효과를, 실천적 민주시민역량에는 부정적 효과를 가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서관은 모든 연령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이어야 하지만(류희경 2010) 어린이나 성인에 비하여 청소년이 특히 공공도서관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집단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박온자 2005).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공공정책 설계에서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고 또한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나마 제공되고 있는 현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어떤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짚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오히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한국 청소년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민주적 시민역량의 인식-실천 괴리가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독특한 맥락에서 청소년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평균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식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반면, 민주시민역량의 참여적 혹은 실천적 역량을 되레 위축시킬 것이라는 추론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데 일차적 학술적 기여가 있다. 이는 한국에서 공공도서관 등이 어린이나 성인 서비스에 청소년서비스를 임시방편적으로 편입시키는 현실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고, 임시위주의 교육 풍토 속에서 독서와 문화 등 다양한 참여활동의 콘텐츠가 청소년도서관 안에서도 실종된 데서 연유할 수 있다(김종성, 엄미진 2010).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학생이 도서관의 이용경험이 있다는 점과 맞물려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불균형에 기여하는 집단이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지 스케치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중에서 도서관의 이용자는 민주시민역량의 인식 차원과 실천 차원 간의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집단이며, 그 수는 전체 청소년의 대다수에 이르고 있다. 그나마 민주시민역량을 구성하는 인식차원과 실천차원의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하는 청소년은 대체로 도서관 밖에 있는 학생들이며, 이러한 사실은 평균적으로 되레 도서관 밖의 환경이 도서관 안의 환경보다 민주시민역량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자극과 정보 및 체험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물론 민주시민역량의 **앞(인식)**과 **삶(실천)**의 차원 간 불균형·괴리의 취약함을 원래 가

지고 있던 학교청소년이 학업성취만을 희구하면서 도서관의 이용자가 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의 도서관을 이용한 결과 민주시민역량의 심각한 불균형을 경험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장과 장소 간의 상호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Stokols 1981).³⁾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청소년의 인식과 실천 간의 균형이 잡힌 민주시민역량의 조성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 지원체계를 고안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취약성과 함께 역설적으로 도서관의 가치에 주목할 근거를 발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한국 청소년의 분열적 '앞'과 '뒤'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그 균열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설계, 재프로그램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 안에서 민주시민역량의 실천 측면에서 취약한 청소년을 선도하고 다양한 직접적, 간접적 체험과 청소년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도서관 안팎에서 시민적 공동체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도서관정책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주된 원천이 가족내부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Coleman 1988).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은 가족내부의 대화

와 소통의 양과 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내부 사회적 자본(Sandefur, Meier, & Hernandez 1999)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되며, 따라서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대상을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족으로 확장하여 가족이 청소년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이 소통과 대화의 증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지역사회의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프로그램 공급자들과 청소년들을 연결해 주며, 도서관 자체가 그러한 활동 진흥 프로그램의 매개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도서관이 학교 교과 학습의 보조적 역할에만 그쳐서는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다.

최근 우리나라 학교가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면서 학교교육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추세에 있는데, 지역사회의 도서관이 이러한 학교교육의 변화를 보다 역동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제도권의 공식적 교육이 충분히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강화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을 것이다(이경란 2011).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건강한 발달을 해 가려면 가족과 지역사회 외에도 학교요인이 중요함은 분명하지만(Eriksson, Hochwalder, & Sellstrom 2011), 학교는 다양

3) 인간이 특정 속성을 가진 장소를 선호할 수 있는 것처럼, 장소가 특정 속성을 가진 인간을 선호할 수 있다(Bonnes and Secchiaroli 1995).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현재 학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건전한 놀이문화 회복과 역할극 등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관련한 장서를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장서와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하은혜, 장윤금, 권나현 2011) 관련된 참여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청소년과 가족을 겨냥한 도서관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차자료가 취급하는 변수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제한점이 있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이 설문에서 이용과 비이용의 선택 문항으로 측정되어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의 양과 질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논의를 본 논문에 신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이 2006년의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오는 제한점이 있다. 시간의 측면에서 일반화가능성의 제한점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는 후속연구가 설계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2년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Ⅱ)'에 담긴 저자의 문제의식과 이론적 논의를 한국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논문은 2012년 제49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발표한 저자의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논문의 출판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분석 자료를 제공해 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논문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특별히 민주주의 이론을 현실 공공정책의 분석과 관련하여 숙고하도록 저자를 격려해 주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권혁주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본 연구논문의 작성과정에서 문헌수집을 포함하여 저자를 도와 수고해 준 이경숙 씨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참 고 문 헌

김영석. 2007. 영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1): 5-22.
김종성, 엄미진. 2010. 공공도서관 청소년 프로그

그램의 유형별 특성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2): 39-56.
김준홍. 2012.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언어 환경이 욕설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

- 소년연구』, 23(4): 159-188.
- 김태준, 전인식, 변종업, 장혜승, 반재천, 조영하. 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류희경. 2010. 평생 학습의 장으로서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고찰. 『독서연구』, 23: 185-203.
- 박은자. 2005.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서비스에 관한 연구: 미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2): 5-33.
- 윤정옥. 2008. 미국 청소년의 독서행태 및 환경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33-54.
- 이경란. 2011. 공공도서관 청소년 프로그램 모형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5-26.
- 이경란, 한복희. 2009. 공공도서관 청소년 프로그램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115-130.
- 이동원, 정갑영, 박준, 채승병, 한준. 2010.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란주. 2006. 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연구지원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261-274.
- 이연옥. 2007. 고등학생 정보요구 해결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107-134.
- 이연옥. 2010. 북미 공공도서관계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경향과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1): 51-76.
- 장근영, 박수억. 2011a. 『아동·청소년의 민주 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1-R23.
- 장근영, 박수억. 2011b. 『아동·청소년의 민주 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1-R23-1.
- 정진수. 2009.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의 비판적 분석 I: 학습을 위한 정보이용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143-153.
- 하은혜, 장윤금, 권나현. 2011. 청소년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평가: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181-200.
- 한윤옥, 이연옥. 2008. 공공도서관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127-154.
- 황금숙. 2003.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4(2): 41-57.
- Amadeo, J. A., Torney-Purta, J., Lehmann, R. H., Husfeldt, V., and Nikolova, R. 2002.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mong Upper Secondary Students."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Sixteen Countries*.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Audigier, F. 2000. *Project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Basic Concepts and Core Competencies for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 Bonnes, M. and Secchiaroli, G. 1995. *Environmental Psychology: A Psycho-social Introduc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 Brehm, J. and Rahn, W.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3.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Dahlgren, P. 2006. "Doing Citizenship: The Cultural Origins of Civic Agency in the Public Sphere."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9(3): 267-286.
- Dasgupta, P. 2010. Social Capital and Economic Performance: Analytics. In Ostrom and Ahn (Eds.), *Foundations of Social Capital*. Edward Elgar Publishing.
- D'Elia, G., Abbas, J., Bishop, K., Jacobs, D., and Rodger, E. J. 2007. "The Impact of Youth' Use of the Internet on Their Use of the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Academic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8(14): 2180-2196.
- Dresang, E. T., Gross, M., and Holt, L. E. 2003. "Using Outcome Measures to Assess School-age Children' Use of Technology in Urban Public Libraries: A Collaborative Research Proces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5(1): 19-42.
- Eriksson, U., Hochwalder, J., Sellstrom, E. 2011. "Perceptions of Community Trust and Safety: Consequences for Children's Well-being in Rural and Urban Contexts." *Acta Pædiatrica*, 100(10): 1373-1378.
- Fleming, K. and Thorson, E. 2008. "Assessing the Role of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in Learning from Local News Media about Sources of Social Capital." *Mass Communication & Society*, 11(4): 398-419.
- Gong, H., Japzon, A. C., and Chen, C. 2008. "Public Libraries and Social Capital in Three New York City Neighborhood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99(1): 65-83.
- Goodin, R. E. 1992. *Motivating Political Morality*. Cambridge &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Goodin, R. E. 2004. Democracy, Justice and Impartiality. In K. Dowding, R. E. Goodin and C. Pateman (Eds.), *Justice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oss, M. 1999. "Imposed Queries in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Descriptive Stud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1(4): 501-521.
- Hall, P. 2002.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Distribution of Social Capital. In R. D. Putnam (Ed.), *Democracies in Flux: The Evolution of Social Capital in Con-*

- temporary Society*, 21-57. OxfordUP.
- Harpham, T., Grant, E., and Thomas, E. 2002. "Measuring Social Capital within Health Surveys: Key Issues." *Health Policy and Planning*, 17(1): 106-111.
- Helliwell, J. 2001.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Kentucky.
- Hillenbrand, C. 2005. "Public Libraries as Developers of Social Capital." *Australasian Public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18(1): 4-12.
- Howlett, M. 2005. What Is a Policy Instrument? Policy Tools, Policy Mixes and Policy-implementation Styles. In E. P. M. Hill and M. Howlett (Eds.), *Designing Government: From Instruments to Governance*. Montreal: McGraw-Hill University Press.
- Johnson, C. A. 2010. "Do Public Libraries Contribute to Social Capital?: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2(2): 147-155.
- Johnson, C. A. 2012. "How Do Public Libraries Create Social Capital? An Analysis of Interactions between Library Staff and Patron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4(1): 52-62.
- Kawachi, I., Kennedy, B. P., Lochner, K., and Prothrow-Stith, D. 1997.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9): 1491-1498.
- Knack, S. 1992. "Civic Norms, Social Sanctions, and Voter Turnout." *Rationality and Society*, 4(2): 133-156.
- Macchion, F., and Savic, N. 2011. "Youth: An Exchange of Ideas for Public Libraries." *Australasian Public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24(1): 17-22.
- Pichler, F., and Wallace, C. 2007. "Pattern of Formal and Informal Social Capital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2): 423-434.
- Salamon, L. M. 2002. *The Tool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ndefur, G., Meier, A., & Hernandez, P. 1999. *Families, Social Capital and Educational Continuatio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Working Paper No. 99-19.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and Losito, B. 2010.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Thirty-eight Countries*.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Sin, S. J. and Kim, K. 2008. "Use and Non-use of Public Libraries in the Information Age: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Library

- Services Variabl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0(3): 207-215.
- Stokols, D. 1981. Group × Place Transactions: Some Neglected Issues in Psychological Research on Settings. In D. Magnusson (Ed.). *Toward a Psychology of Situations: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393-41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Torney-Purta, J., Lehmann, R., Oswald, H., and Schulz, W. 2001.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Torney-Purta, J., and Vermeer, S. 2004. *Developing Citizenship Competencies from Kindergarten through Grade 12: A Background Paper for Policymakers and Educators*. Denver: National Center for Learning and Citizenship.
- Uphoff, N. 1999.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Learning from the Analysis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P. Dasgupta and I.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World Bank.
- Vårheim, A. 2007. "Social Capital and Public Libraries: The Need for Research."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9(3): 416-428.
- Vårheim, A. 2011. "Gracious Space: Library Programming Strategies towards Immigrants As Tools in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3(1): 12-18.
- Vårheim, A., Steinmo, S., and Ide, E. 2008. "Do Libraries Matter? Public Libraries and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Documentation*, 64(6): 877-892.
- Verba, S., Schlozman, K. L., and Brady, H. E.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